제51기 결산공고

대 차 대 조 표

제51(당)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

(단위 : 원)

과 목	금 액	과 목	금 액
一. 자산	656,643,982,809	一. 부채	551,013,246,405
Ⅰ. [현금 및 예치금]	61,041,380,723	Ⅰ. [예수부채]	524,634,987,115
현금	559,285,574	예수금	524,634,987,115
예치금	60,482,095,149	(수입부금)	500,000
(보통예치금)	-	(보통예금)	2,411,118,709
(지급준비예치금)	18,642,348,810	(별단예금)	-
(중앙회예치금)	40,500,000,000	(정기예금)	518,939,529,682
(기타예치금)	-	(저축예금)	686,893,591
(금전신탁)	1,339,746,339	(자유적립예금)	1,226,650
Ⅱ. [유가증권]	64,439,162,307	(정기적금)	2,536,496,740
단기매매증권	1,428,750,200	(기업자유예금)	50,131,743
(주식)	1,428,750,200	(재형저축)	-
매도가능증권	59,717,959,288	(장기주택마련저축)	9,090,000
(주식)	372,613,266	Ⅱ. [차입금]	-
(수익증권)	12,254,871,795	사채	-
(CP)	45,088,431,235	차입금	-
(기타매도가능증권)	2,002,042,992	Ⅲ. [기타부채]	26,378,259,290
만기보유증권	3,292,452,819	퇴직급여충당부채	6,009,680,368
(지준유가증권)	3,292,452,819	퇴직연금운용자산(-)	(6,009,680,368)
Ⅲ. [대출채권]	442,145,604,676	기타충당부채	1,000,209,062
대출금	480,289,965,243	미지급금	109,613,975
(할인어음)	-	미지급비용	8,318,469,120
대손충당금	-	선수수익	-
(예적금담보대출)	701,712,155	수입보증금	500,000,000
대손충당금	(7,017,122)	이연법인세부채	12,178,904,348
(일반자금대출)	191,600,565,788	미지급법인세	1,277,052,043
대손충당금	(17,049,442,960)	수입제세	482,172,780
(종합통장대출)	278,561,116,638	잡부채	495,530,104
대손충당금	(18,132,735,530)	내국환	2,000,252,858
(기타대출채권)	9,426,570,662	국고대리점	16,055,000
대손충당금	(1,963,080,436)	부 채 총 계	551,013,246,405
(이연대출부대수익(-))	(992,084,519)		
Ⅳ. [유형자산]	79,996,297,773	二. 자 본	105,630,736,404
토지	75,884,888,514	Ⅰ. [자본금]	12,000,000,000
건물	5,359,300,255	Ⅱ. [이익잉여금]	48,673,632,256
차량운반구	397,325,044	Ⅲ. [기타포괄손익누계액]	44,957,104,148
동산	685,794,662		
기타의 유형자산	1,426,041,371	(당기순이익	
감가상각누계액(-)	(3,757,052,073)	당 기 : 6,725,214,284	
Ⅴ. [기타자산]	9,021,537,330	전 기 : 6,565,126,061)	
보증금	1,314,000		
미수금	-	자 본 총 계	105,630,736,404
미수수익	2,054,681,390		
대손충당금(-)	(109,187,555)		
선급금	70,519,859		
선급비용	616,845		
투자자산	2,477,292,122		
무형자산	156,817,118		
비업무용자산	2,167,095,335		
종업원대여금	181,167,500		
대손충당금	(1,811,675)		
잡자산	13,932,636		
내국환	2,009,099,755		
자 산 총 계	656,643,982,809	부 채 와 자 본 총 계	656,643,982,809

상기와 같이 공고함

㈜스카이저축은행 대표이사 유 석 현

감사의견 :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51기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.

신우회계법인 대표이사 한 상 우